

‘코로나19’ 여파 캠프 연장... 맷 감독 “난감하네~”



플로리다
TIGERS
캠프를 가다
김여울 기자

시범경기 취소 방침에
캠프 8일 연장해 15·16일 귀국

피로도 증가 따른 부상 위험 ↑
주루 없는 경기·투구수 조절 훈련
선수들 컨디션 관리 ‘비상’

맷 감독, 리그 실전 기회 사라져
엔트리 선발·상대팀 분석 등
올 시즌 전력 구상 차질



‘코로나 19’로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취소되자 KIA 타이거즈가 스프링캠프를 8일 연장했다. 사진은 KIA 선수들이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 테리 스포츠파크에서 주루 훈련 중인 모습.

/플로리다=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코로나19’가 KIA 타이거즈 2020시즌의 주요 변수가 됐다.

KIA는 지난 28일 플로리다 스프링캠프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오는 7일 귀국을 준비했던 KIA는 캠프 기간을 8일 연장해 오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14일 개막 예정이었던 시범경기 일정이 코로나 19 여파로 전면 취소되면서 KIA 선수단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KIA는 귀국 후 11·12일 각각 NC·KT 2군과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시범경기 10경기를 통해서

엔트리 구성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범경기 일정이 취소되자 훈련 공백과 코로나19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캠프 기간을 연장했다.

KIA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고민은 많다.

예상치 못했던 일정 연기로 선수들의 피로도도 증가하면서 부상 위험성도 커졌다.

효율적이고 집중력 있는 스케줄로 훈련 시간을 최소화하고 한식 식단으로 세심하게 선수들을 배려하고 있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다. 실전 돌입으

로 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졌고, ‘논스톱 캠프’도 선수들에게는 낯설다.

이창진이 허리 통증으로 조기 귀국한 가운데 최근 또 다른 부상자도 발생했다. 이번 캠프에서 ‘1호 홈런 주인공’ 자리를 차지했던 이진영이 주루 도중 햄스트링 부상을 입으면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수들의 컨디션이 떨어지자 KIA는 부상 방지 차원에서 지난 29일에 이어 1일 연습경기에서 주루 없는 연습 경기를 치렀다.

타자들은 타격 후 1루 베이스까지만 달린 뒤 덕

아웃으로 복귀했고, 2루타의 경우에도 2루 베이스만 찍고 들어왔다. 이런 방식 탓에 KIA는 29일 경기에서 18안타를 치고도 득점란에 ‘0’을 기록했다.

투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한 투구수 조절은 연습 경기 첫날부터 이어지고 있다.

플로리다 현지에서 추가 연습경기를 준비하는 등 실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범경기 취소는 KIA에는 악재다.

KIA는 올 시즌 구단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인 맷 윌리엄스 감독을 앞세워 2020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이 마무리캠프를 시작으로 스프

링캠프까지 꼼꼼하게 선수들을 지켜봤지만, 완벽한 전력 평가를 위해서는 리그에서 경쟁하게 될 상대들과의 ‘진짜 실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범경기를 통해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려던 윌리엄스 감독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또 낯선 리그를 미리 살펴볼 기회도 무산됐다.

KBO리그 전력을 점검하고, 맞춤형 전략을 짤 기회가 사라지면서 윌리엄스 감독의 2020시즌 구상에도 고민이 더해졌다. ‘부상’, ‘상대 분석’이라는 두 가지 고민을 안고 KIA가 ‘연장 캠프’를 치르게 됐다.

/wool@kwangju.co.kr

K리그1 주장 절반이 미드필더

숫자로 보는 면면 ... 평균 나이 32세·신장 181.2

코로나 19 여파로 2020시즌 K리그1 개막이 미뤄졌다.

팬들을 만날 시간이 늦어졌지만 각 팀은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2020시즌을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치열하게 전개된 순위 싸움, 선수들의 구심점인 주장은 ‘특별 전력’이기도 하다. 숫자로 새 시즌을 이끌어갈 팀 주장의 면면을 확인해본다.

◇1, 4, 7

12개 팀 주장 중 7명이 미드필더 포지션에 포진했다. 광주FC의 여름(사진)을 비롯한 한석중(상주), 고요한(서울), 염기훈(수원), 신진호(울산), 서보민(성남), 최영준(포항) 등이 중원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팀 승리를 지휘한다. 수비수 주장은 오범석(강원), 홍정운(대구), 강민수(부산), 이재성(인천) 등 4명이다. ‘라이언 킹’ 이동국(전북)은 유일한 공격수다.

◇3

성남의 서보민은 올해로 3년째 주장으로 된다. 새로 성남의 지휘봉을 잡은 김남일 감독도 서보민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해 올 시즌에도 주장을 맡겼다. K리그 통산 191경기에 출장한 서보민은 올 시즌 200경기 출장 기록을 채울 준비를 끝냈다.

◇32

주장 12명의 평균 나이는 만32세(1월 1일 기준). 1979년 생인 이동국은 (41세)는 K리그 최고령 선수이기도 하다. 가장 어린 주장은 홍정운(26)으로 1994년 생이다. 32세 주장들로는 고

요한, 신진호, 이재성이 있다. 광주를 대표하는 여름은 31세다.

◇181.2

올 시즌 주장을 맡은 12명의 평균 신장은 181.2cm이다. 최장신 주장으로도 이동국이 이름을 올렸다. 187cm 이동국은 인천 이재성, 대구 홍정운과 함께 가장 키가 큰 주장이다. 강민수와 한석중이 186cm로 뒤를 이었다. 서울 고요한은 170cm로 최단신이다.

◇224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주장 역시 이동국이다. 2년 연속 전북의 주장을 맡은 이동국은 통산 224골로 K리그 최다 통산 득점 보유자 자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번 시즌 이동국이 득점에 성공할 때마다 K리그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

◇3209

K리그1 12개 구단 주장들이 지금까지 출전한 경기수는 총 3209경기다. 올해로 23년 차인 이동국이 가장 많은 537경기에 출전했고, 강민수(394경기), 염기훈(371경기), 오범석(370경기)이 그 뒤를 잇는다.

한편 K리그2에서는 하성민(경남·MF), 황재훈(대전·DF), 김영남(부천·MF), 김민균(서울·MF), 이한샘(수원FC·DF), 박세직(충남·MF), 이인재(안산·DF), 최호정(안양·DF), 김주원(전남·DF), 이창민(제주·MF)이 올 시즌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를 누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여름

손흥민, 영국 가면 2주간 자가 격리

모리뉴 “코로나19 대응정책 따라야”

한국에서 부러진 오른팔 요골 접합 수술을 받은 손흥민(토트넘)이 영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따라 토트넘에 복귀하면 2주 동안 자가 격리가 불가피해졌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지난 29일 “손흥민이 한국에서 돌아오면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만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영국 언론은 지난 27일 “토트넘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지만 손흥민이 코로나19 증세가 전혀 없다면 자가 격리하지 않을 것이다. 토트넘도 손흥민이 감염되지 않았을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토트넘은 결국 영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손흥민을 2주

동안 자가격리 시키기로 결정했다.

손흥민은 지난 16일 애스턴 빌라와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전 킥오프 30초 초 만에 상대 수비수와 충돌한 뒤 넘어지면서 오른팔 전완골부 요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했다. 19일 귀국한 손흥민은 21일 병원에서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골절 부위 접합 수술을 받고 회복에 들어갔다.

토트넘은 조기 복귀를 원하는 상황에서 결국 코로나19의 여파로 손흥민은 영국으로 돌아가도 자가 격리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손흥민은 2주 동안 자가 격리하면서 수술 부위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벌었다.

모리뉴 감독은 이에 대해 “구단은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을 따라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리버풀, EPL ‘무패 우승의 꿈’ 와르르~

강등권 왓퍼드에 0-3 충격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무패 우승을 향해 질주하던 리버풀이 강등권의 왓퍼드에 충격의 첫 패배를 당했다.

리버풀은 1일 영국 왓퍼드의 비커리로드에서 열린 2019-2020 EPL 2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에만 3골을 내주고 0-3으로 완패했다.

올 시즌 26승 1무 무패를 달리던 리버풀은 시즌 첫 패배를 당해 ‘무패 우승 신화’ 작성이 무산됐다. 선두(승점 79점) 자리는 유지했다.

리버풀은 연습 기록이 18경기에서 끝나면서 2019년 1월 맨체스터시티가 작성한 18연승을 제치고 단일 시즌 최다 연습 기록을 갈아치울 기회를 놓쳤다. 또 역대 최다 아스날의 49경기 무패(2004년) 기록 경신을 6경기 앞두고 멈춰 섰다.

강등권에 있던 왓퍼드는 ‘대어’를 잡아내며 잔류 마지노선인 17위(승점 27)로 올라섰다.

잉글랜드 최상위 리그의 강등권 팀이 선두 팀을 상대로 3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둔 건 1985년 11월 레스터시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3-0으로 이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연합뉴스